



중국 민영기업 발전과 노사관계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1월 25일 공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정협’) 제11기 전국위원회 전체 위원 2,237명의 명단에는 100여 명의 민영기업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¹⁾ 사영 기업주의 28.8%가 인민대표위원이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은 중국에서 비공유 경제 부분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민영기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그 공헌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들의 현황 검토와 이미 중국사회의 주요 사회갈등 요소가 되어버린 노사관계 문제도 함께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1) 중국 국가통계국과 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등기주책유형에 관한 규정(关于划分企业登记注册类型的规定)」에 따르면, 사영기업(私营企业)은 “자연인이 투자 설립 혹은 주식 통제를 통해 노동력 고용을 기초로 영리성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체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사영기업과 달리, 민영기업(民营企业)은 민간의 경영이 분류 기준이 되는 기업의 형태로, 전체 사유제 경제와 국유국영을 제외한 기타 공유제 경제(향진기업, 합작사경제, 사회단체소유제경제 등등)을 함께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글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华全国工商联)에서 개최한 “중국민영기업발전분석회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였으며, 법적 소유제 기준에 따른 통계 자료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국영기업과 대비되는 비공유 경제의 통칭에는 민영기업을 사용하였다.

■ 사영기업의 증가

2007년 3/4분기까지 등록된 사영기업은 538만7천 개로 전체 기업의 59.4%에 이르며, 2006년에 비해 8.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사영기업이 최대인 성은 지양수(江苏)성으로 63만9천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광둥(廣東)성에 58만개, 상하이(上海)에 49만5천 개, 저장(浙江)성에 43만1천 개, 산둥(山东)성에 37만1천 개의 사영기업이 분포되어 있고, 이상 5개 지역의 사영기업수가 전체 사영기업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도 2천6백7십8만 가구로 전년대비 1%, 25만8천 가구의 증가를 보였다. 사영기업으로 등록된 자금의 총액이 8조8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5%의 성장을 보였고, 투자자도 1,362만1천명으로 7.1%의 증가를 보였다.

사영기업의 번영, 이미 중국 취업의 주요 통로

2007년 11월까지 사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이 3천1백3십4억 달러로 동기 대비 43.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11월까지 규모 이상의 사영공업 이윤 총액이 4천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50.9%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사영기업 세수총액이 4천7백7십1억5천만 위안, 개인사업자 세수 총액은 1천4백8십4억2천만 위안으로 각각 동기대비 36.5%와 24.2%의 증가를 보였다.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7천5십8만6천 명에 이르며, 개인사업자가 등록한 근로인원이 5천4백2십9만 명이다. 사영기업 부문에 보편적인 근로자 등록 회피 현상과 미등록 개인사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략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민영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국도시향진기업 취업인수 4억3천만 명과 국유 및 국가기관 종사자 9천만여 명을 제외한 중국 비농업분야 취업인구 중 약 80%가 민영기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 민영기업 노사관계 개선 상황

거시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사영기업의 번영과 조직 수준의 발전으로 민영기업 부문에서 노사관계 개선이 기업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 노동관련 3대 법의 제정과 실행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확충되어 기업에 새로운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노사관계 개선의 문제는 민영기업의 지속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 및 노사관계 조정기구의 조직

2006년 전국 기업 내 조직된 전체 노조 88만4천 개 중 민영기업이 71만5천 개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였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8천1백6십1만 명, 근로자의 기업노조 가입률은 58.6%에 이르렀다. 중화전국총공회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업이 노조를 설립한 비율은 31.8%이고 근로자가 노조에 참여한 비율은 39.8%이었으며, 67.8%의 근로자가 노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답하였다.

공상련의 민영기업 노동관계상황 중점조사에 따르면, 11%의 기업이 노동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였고, 25%의 기업이 설립 준비 중에 있다.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7.43%,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78.26%이다. 노조측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최종적으로 협상과 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전체의 68.8%이며, 노조가 기업과 평등협상을 진행한 경우는 국유기업의 경우 27.5%, 사영기업의 경우 13.7%였다.

근로자 수입 증가와 사회보장 수준의 제고

총공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367위안으로 2002년에 비해 37.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영기업의 경우 1,204위안으로 전국 수준의 88%에 해당한다. 공상련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업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이 13,480위안으로 2003년에 비해 67.8% 증가하였으며, 국유기업 평균임금의 83%에 해당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80%가 근로계약에서 확정된 임금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답하였고, 95.7%는 임금이 매달 제대로 지급된다고 응답했다.

2006년 말 전국 민영기업이 참여한 기본 양로보험수는 4천5백만 건으로 전년대비 61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민공이 1천4백1십7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공상련의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62%가 산재보험에, 51%가 기본 의료보험에, 48%가 기본 양로보험에, 41%가 실업보험에, 34.5%가 임신출산육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민영기업의 특징

대부분이 신흥기업

중국 전체 사영기업은 1990년 9만8천 개, 1995년 65만 개, 2000년 176만 개, 2007년 현재 538만 개로 최근 7년 사이 매년 50여만 개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영기업의 2/3가 21세기에 탄생한 신흥 기업이다.

소규모 노동밀집형 기업

전국 사영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10.6명, 투자자는 2.5명이며, 판매 수입은 70여만 위안이고, 전체의 95% 이상이 가공업, 건축노무, 일반 유통 및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절대다수의 기업이 기술수준이 낮으며,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경영자의 지식수준과 법률의식, 관리능력 등이 높지 않으며, 근로자의 문화수준과 근무능력, 직업정신 등이 일반적으로 낮아 이들의 경영변화가 빈발하고 근로자의 유동성도 큰 편이다. 2006년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사영기업이 32만 개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하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사영기업이 2천여 개인 반면, 없어지는 사영기업도 800여 개에 이른다. 국제관례상 우수기업의 근로자 유실률이 15% 정도인 데 비해, 중국 민영기업의 인재 유실률은 30% 가까이에 이르며, 중소형 민영기업의 경우 근로자 유실률이 50% 이상에 이른다.

■ 민영기업 노사관계의 여전한 난제들

근로계약 체결률 여전히 낮아

공상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민영기업 중 약 80%가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업의 전체 근로계약 체결률은 50% 수준이고, 민영기업의 경우는 겨우 20% 수준이며, 이 중 60~70%의 근로계약이 단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공회의 통계에 따르면, 공유제 기업,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로자들이 2천5백만 명이며, 이 중 건축계통이 1천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50% 이상의 사영기업 근로자가 근로계약 없이 근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15.7%이다. 민영기업 근로자의 근로계약 실행에 대한 평가치 또한 기타 기업에 비해 낮다.

노조 조직과 사회보험 비중 낮아

여전히 사영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조를 설립하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노조도 적지 않다. 총공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영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대회를 조직한 경우는 전체의 1/4 정도이며, 노조와 기업이 평등협상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의 13.7%에 그치고 있다. 공상련의 조사에 의하면 노조를 설립한 기업이 31.8%이며, 근로자의 참여 비율은 38.9%이고, 약 40%의 근로자가 노조가 별도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참여 비율은 높지 않고, 사회보험 수준도 낮으며, 농민공의 경우는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총공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기업이 전체의 35% 이상이며, 50% 이상의 기업이 기본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60%가 실업보험에, 38%가 산재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국 각 사용자 중 근로자에게 5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35% 수준이며, 특히 민영기업의 보험 납입 비율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국유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임금인상제와 노동분쟁조절기제 필요

농민공의 체불임금과 일부 기업의 여전한 최저임금 기준 미적용은 민영기업이 풀어야 할 난제이다. 단체임금협상제도의 보급이 아직 미비하고, 대부분 기업측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어서, 총공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영기업에서 임금단체협상을 실행하는 경우가 전체의 14.2%에 그치고 있다. 공상련의 조사에서는 임금을 경영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1/3, 인력관리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27.5%, 단체협상제도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이다. 관리자와 근로자의 수입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어, 적절한 임금인상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동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단체노동쟁의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1995~2006년 12년간 노동분쟁안건이 13.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2003년 전국 노동분쟁안건과 관련 근로자수가 각각 36%와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사영기업의 경우 55%와 11.6%, 개인사업자의 경우 156%와 43%, 특히, 주식제 기업의 경우는 552.7%와 122.6%의 증가를 보였다. 2005년 전국노동분쟁안건은 31만4천 건으로 2004년에 비해 20.5% 증가하였으며, 2004년 단체노동쟁의의 경우 전체 분쟁안건의 7%, 전체 관련 근로자수의 62.5%에 달하고 있다. 사영기업의 노동분쟁이 증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조정에 의한 해결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50%, 기업의 승소는 10%, 쌍방이 승소하는 경우는 30% 정도였다.

사영기업주 계층 변화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문화의 신 조류

2007년 전국사영기업 조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사영기업으로 몰려드는 주요 계층은 개혁개방 이전 사회 계층에서 분화되어 재조합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이고, 이들 중 9천여 명이 현금 이상 인민대표로, 3만여 명이 현금 이상 정협 위원으로, 2백여 명이 전국공상련 집행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 신(新)사영기업주들은 문화혁명 시기 농촌, 공장, 광산 등지로 하방되었다가 도시로 돌아온(回城) 지식청년층, 전직 국가기관 간부와 기술인력(下海, 전체 사영기업주의 10%), 전직 국유 및 집체기업 근로자(转制, 전체의 37%), 해외 유학(海归)과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사회구조에도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신사영기업주들은 기업구조 및 경영방식에서도 변화를 보여, 현재 사영기업 중 이사회를 설치한 기업이 63.5%로 1993년 2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사영기업이 전체의 16.7%에 이르며, 41.4%의 사영기업이 매년 자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고, 9.5%의 사영기업이 해외기업과 합자합작관계를 맺고 있으며, 1.9%의 기업은 이미 해외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들의 평균 투자액이 82만 달러에 이른다.

신사영기업주들은 또한 기업과 사회의 상호이익 발전과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도 기존의 중국 기업주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영기업의 84.1%가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중국자선사업촉진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6월 민영기업이 참가한 자선사업이 1만6천2백4십4개 항목으로, 1천3백3십7억8천 위안이 투자되어 동기 대비 각각 815건과 90.8억 위안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한 사회성원이 7백8십7만6천만 명으로 동기 대비 17만8천명의 증가를 보였다.

■ 맺음말

경영조건 악화 및 노사관계 문제 등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것들로,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민영기업은 이 문제에서 결코 분리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공상련의 연구 발표와 회의에서는 민영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노사관계의 개선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노사정 3자 기제에 중국 공상련이 기업의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위상론도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는 각종 소유제와 이에 따른 다양한 경제체제가 혼재되어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발전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익 경쟁에도 적절한 대처와 조율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KLI**